

무용학의 현상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이해*

김현정** · 한석진***

I. 들어가는 말	IV. 나가는 말
II. 무용 현상학의 이해	참고문헌
III. 한국 무용학에 나타난 현상학적 접근 분석	Abstract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한국 무용학에서의 현상학적 접근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현상학적 접근’이 무용연구에서 의미하는 바를 재규명하고 그것의 중요성과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현상학(phenomenology)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형이상학에 도전하면서, 본질은 (현상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상 그 자체에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상학은 어떠한 세계나 경험이 우리의 의식에서 드러나는 것이 곧 현상이며, 그 현상을 구성하는 구조에 존재하는 그 무엇을 파악하려고 한다. 전통철학과 달리 현상학은 현상이 나타나는 대상의 본질이 아니라 현상이 드러나는 의식의 본질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세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상학은 현상을 인식할 때 어떤 선입견이나 판단을 중지하고, 직접적인 직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의식의 체험은 몸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는 몸을 (이성 또는 정신의 부차적인 존재로 보는 전통철학의 관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실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입장이며, 서구철학의 심신이원론의 영향 아래 간과되어 왔던 몸을 재인식하게 하였다. 따라서 몸을 주된 매체로 삼는 무용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현상학은 ‘춤추는 몸’ 또는 ‘춤을 보는 경험’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구조’를 논의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였다.

서구 무용학에서는 1966년 맥신 쉬츠-존스톤의 『무용의 현상학』¹⁾이 발간된 이후, 손드라 프렐리를 중심으로 다수의 현상학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²⁾ 현상학은 인지과학³⁾, 페니미즘 연구⁴⁾ 등과 연계,

* 이 연구는 2015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제1저자,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전임연구교수, jinnysjhan@gmail.com

1) M. Sheets-Johnstone(1966), *The Phenomenology of Dance*(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 S. Fraleigh(1987), *Dance and the Lived Body: A Descriptive Aesthetics*(Pittsburgh: University of

발전되면서 무용현상을 바라보는 이론적 토대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무용학에서의 현상학적 연구 대다수는 2000년을 전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늦게 수용된 편이다.⁵⁾ 현상학은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의 영향 아래 소외되었던 ‘몸’과 움직임의 예술로서 무용이 지니는 존재론적 위치를 재고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내 무용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무용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의 대부분은 2000년대 초반에 출간되었으며, 이후 현상학적인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본 연구자들로 하여금 ‘무용학에서 현상학적 논의가 일종의 유행처럼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닌가’, ‘현상학적 논의가 꾸준히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하였고, 그동안 축적된 연구사례들을 재검토하여 성과와 한계점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였다.

무용분야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상학적 접근’ 또는 ‘현상학적 연구’라는 용어 아래 각기 다른 방법론적 접근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할 때, 그것은 춤을 추는 경험을 1인칭 관점에서 기술하는 방식으로 지칭하기도 하며, 3인칭 관점에서 춤추는 경험을 현상학적 이론을 토대로 다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⁶⁾ 또한 현상학적 접근은 ‘현상학에 근거한 이론’⁷⁾,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⁸⁾, ‘체험적 기술과 분석’⁹⁾과 같은 각기 다른 용어들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에 있어서 애매모호함과 불분명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용 현상학의 특성과 적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무용학의 현상학적 접근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무용현상 또는 경험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는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 작업은 무용 현상 또는 경험을 다룬 논문 중에서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현상학적 접근의 의미를 재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무용학에서의 현상학적 연구가 지니는 가치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현상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대표적인 현상학자에

Pittsburgh); S. Fraleigh(1991), A Vulnerable Glance: Seeing Dance Through Phenomenology, *Dance Research Journal* 23(1), pp.11-16; S. Fraleigh(2000), Consciousness Matters, *Dance Research Journal* 32(1), pp.54-62; J. Parviainen(1998), *Bodies Moving and Move: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Dancing Subject and the Cognitive and Ethical Values of Dance Art*(Tampere: Tampere University Press); S. Kozel(2007), *Closer: Performance, Technologies, Phenomenology*(MA: MIT Press).

3) E. C. Warburton(2011), Of Meanings and Movements: Re-Languaging Embodiment in Dance Phenomenology and Cognition, *Dance Research Journal* 43(2), pp.65-83.

4) A. C. Albright(2011), Situated Dancing: Notes from Three Decades in Contact with Phenomenology, *Dance Research Journal* 43(2), pp.7-18.

5) 이와 유사한 양상은 국내 체육학에서도 나타난다. 김홍식에 의하면 한국 체육학에서의 현상학적 연구는 2000년 전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이는 영미권 체육학에서의 현상학적 연구 또는 질적 연구 흐름 일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김홍식(2016), 한국 체육학에서의 현상학적 연구와 방법적 적합성,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4(4), p.174.

6) 김윤희(2004), 신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근거,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2(2), pp.251-266.

7) 권옥희(2005), 존재론적 시각에서 본 춤과 몸의 관계성 연구 - 거울 이미지를 통한 -,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6(1), pp.181-198.

8) 주현아, 여인성(2003), 남성 직업무용수의 무용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6), pp.117-128.

9) 유태균, 정은영(2009), 비보이댄스 체험의 현상학적 접근,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7(3), pp.261-278.

드문트 후설, 마르틴 하이데거,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둘째, 위의 현상학 이론을 무용 경험에 적용시킨 선구자적 무용학자 맥신 슈츠-존스톤과 손드라 프렐리의 논의와 더불어 해외 무용학계에서의 현상학적 연구의 최근 경향을 파악한다. 셋째, 한국 무용학에 나타난 현상학적 접근 양상을 분류하여 비교·분석한 후, 무용학에서의 현상학적 접근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질적 메타분석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내용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문헌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 번째 연구내용에 있어서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하였다. 진 글라스(Gene V. Glass)가 명명한 ‘메타분석’이란 “분석에 대한 분석(analysis of analysis)”¹⁰⁾으로서, 특정 연구문제에 대한 개별적 선행연구의 일치하지 않은 결과들을 통합하여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를 실증연구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다. 메타분석은 “개별 연구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서 “기존 연구물들이 제시하는 결과로부터 축적된 지식과 보다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¹¹⁾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메타분석은 전통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양적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질적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양적 메타분석과 구별 지어 질적 메타분석이라 불린다. 질적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개별 질적 연구들을 하나의 연구로 종합하여 이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개별 특성을 비교, 분석,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단일 연구의 제한된 관점을 넓히고 일반화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¹²⁾에서 본 연구방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II. 무용 현상학의 이해

1. 현상학의 개념과 이론

“사태 자체로!”¹³⁾라는 현상학의 구호가 말해주듯, 현상학이란 형이상학적 원리, 신학적 전제, 또는 실증주의적 전제가 아닌, 현상이 드러나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일종의 철학적 사상이자 방법론이다. 서구 전통철학이 강조한 주체/객체, 의식/대상이란 이분법에 도전하면서 사물이 우리의 의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탐구한다. 이때 현상학은 객관적 대상이 아닌, 대상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몸/정신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하는데 이 때 몸은 정신, 의식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형성하는 신체이며, 타자(세계, 타인, 사물)와 상호주관적 경험을 하는 신체를 말한다.

현상학은 다음과 같은 3명의 주요 학자들에 의해 발전해 왔다. 현상학의 창시자인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은 지각된 물리적 대상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경험이란 순수한 의식 혹은 선험적 자아에 단지 출현한 것을 의미하며, 의식의 본질에 가까워지기 위한 현상학적 방법으로써 “판단중지”를 제시한다. 이는 우리가 세계에 대해

10) G. V. Glass(1976), Integrating Findings: The Meta-Analysis of Research,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5, pp.351-379.

11) 나장함(2008), 질적 메타분석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과정연구』 26(4), p.229.

12) M. Sandelowski, S. Docherty & C. Emden(1997), Qualitative Metasynthesis: Issues and Techniqu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0, pp.365-371; L. Zimmer(2006), Qualitative Meta-Synthesis: A Question of Dialoguing with Tex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3), pp.311-318.

13) E. Husserl(1913), *Ideas Pertaining to a Pure Phenomenology and to a Phenomenological Philosophy*, F. Kersten(trans.)(The Hague: Martinus Nijhoff, 1983), p.35.

알고 있다고 혹은 그러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선형적 믿음을 유보하고, 대신에 현상 그 자체에 주목하는 “현상학적 환원”을 주장한다.¹⁴⁾ 모든 선입견을 배제했을 때 가장 확실해지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항상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항상 어떤 것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식은 세계와의 관계, “항상 이미 거기 있는” 환경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은 외부세계를 의식의 대상으로 경험하고 세계에 대한 지식은 체험(lived experience)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후설이 인식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탐구했다면,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즉 존재론적 의미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 방식에 질문한다. 그는 어떤 것의 존재, 있음을 의미하는 존재(Being)와 존재하는 그 무엇, 있는 것을 의미하는 존재자(beings)와 구별한다. 전통철학이 존재자만을 사유할 뿐,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존재자는 존재에 입각해서 사유해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한다. 존재는 자신을 드러낼 특정한 장소를 발견하고 그 곳에서 실현되어 특정한 형태를 갖는 존재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현존재(being there)”라 지칭한다. 현존재는 항상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현실적인 존재이다. 또한 현존재는 “지금-여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로서의 관계를 통해 실현된다.¹⁵⁾ ‘해석학적 현상학’이란 하이데거가 후설의 현상학을 비판하면서 수정하여 발전시킨 용어이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저서 『존재와 시간』(1927)에서 ‘기초적 존재론’을 전개시켜 나갔고, 후설이 강조한 ‘지향성’을 ‘심리’로 수정, 대체하였다. 하이데거는 후설의 ‘선형적 현상학’과 구분하기 위해 ‘해석학적 현상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¹⁶⁾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 개념에 영향을 받은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는 주체성이 세계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있으며 이 때 세계를 접하는 것은 몸을 통해서임을 강조한다. 그는 근대철학이 강조한 정신의 절대화를 근원적으로 비판하고, 몸의 감각으로 체험하는 세계가 참다운 세계임을 주장한다. 메를로-퐁티에게 몸은 사유하는 정신의 주체가 아닌, 정신과 신체를 구분 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적인 ‘몸-주체’로 존재한다. 즉 의식이 체화된 몸인 것이다. 몸-주체는 “나는 생각한다”가 아닌 “나는 할 수 있다”의 주체를 의미하며, 몸적 지성은 행동하는 실천적 의식을 말한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습과 수련에 의해 상황에 맞춰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몸틀(Body Schema)”을 설명하면서, 몸이 기계적인 물질이 아니라 세계에 맞춰 살아가게 해주는 실존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세계에의 존재인 몸(몸에의 존재인 세계)”로서 몸-주체는 세계로 열려 나가며 체화된 몸 틀을 통해 구조화된다.¹⁷⁾ 동시에 몸-주체의 능동적 행동을 통해 지각되는 세계도 계속하여 변화한다. 객관적인 신체가 아닌 주체의 신체로서 감각하고 행동하는 신체이면서 인격적 주체로 회송되는 신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살(flesh)”이란 개념을 제시하는데, 보이는 것은 “고유한 몸(body proper)”인 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살”이라고 분리해서 설명한다.¹⁸⁾ 살은 몸의 능동성과 수동성 모두를 가능케 하는 존재론적 바탕이며, 몸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열려 있으며 주체와 객체가 교환되는 가역성(reversibility)을 지니고 있기에 절대적 주체와 즉자적 객체의 구도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논의는 무용학자들로 하여금 춤추는 무용수의 몸과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행위

14) E. Husserl(1907), *The Idea of Phenomenology*, L. Hardy(trans.)(Dordrecht: Kluwer, 1990).

15) M. 하이데거(1927), 『존재와 시간』, 이기상(역)(서울: 까치, 1998).

16) 이남인(1996), 하이데거의 후설 비판과 해석학적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연구』 8, pp.199-242.

17) M. 메를로-퐁티(1945), 『지각의 현상학』, 류익근(역)(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18) M. 메를로-퐁티(1964),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남인수(역)(서울: 동문선, 2004).

를 재탐구하도록 이끌었다. 무용수의 춤추는 몸과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몸 모두 고정된 주체(관람자)와 객체(무용수)의 자리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를 지각하는 실존적 존재임을, 그리고 무용수는 지각하면서 동시에 지각되는 상태이며, 관람자는 바라보는 행위 속에서 몸으로 그것을 감각하고 동시에 그것에 의해 변화된 자신을 지각하고 있음을 논의하도록 이끌었다.

2. 해외 무용학에서의 현상학적 접근

위와 같은 현상학 이론들은 현상은 될 수 있으나 진리로 인식되지 않았던 ‘몸’을 재평가하였고, 역사 속에서 경시되었던 무용예술 또는 무용경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켰다. 또한 무용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은 통계와 수치와 같은 정량적 분석방법으로 파악될 수 없는 ‘무용 체험’이 지니는 질적 측면과 그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현상학은 3인칭의 객관적 서술이 아닌 1인칭의 주관적 체험에 의해서 무용경험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것이다.

무용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의 선구자인 맥신 쉬츠-존스톤(Maxine Sheets-Johnstone)은 그녀의 저서 『무용의 현상학』(1966)에서 인간은 의식하는 몸에 의한 반성적 인식과 직접 체험에 의해서만이 무용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후설의 현상학적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녀는 말한다. 후설은 의식에 드러나는 현상이나 세계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이나 판단을 중지한 채 기술하는 것을 ‘현상학적 기술’이라 부르면서, 이를 통해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쉬츠-존스톤은 “무용에서 보이는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무용 경험의 본질을 추측하고 기술하기 시작한다”¹⁹⁾라고 말한다. 즉, 현상학적 기술을 통해서만이 무용을 체험하면서 그것의 본질적 구조인 힘, 시간, 공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와 같이 쉬츠-존스톤의 무용 현상학적 연구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무용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총체적 현상으로서 무용의 형식적 토대를 밝혀냈다면, 손드라 프래리(Sondra Fraleigh)는 무용수로서 자신의 1인칭 시점에서 무용의 직관적 경험을 기술한다. 프래리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무용에 대해 비평할 때, 무용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기술하고 해석하며 1인칭 시점의 목소리를 드러낸다.²⁰⁾ 그러나 무용 경험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무용수의 목소리, 그리고 무용을 창작하는데 있어서 안무가의 의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현상학은 객관적 3인칭 서술이 더 일반화되어 있는 무용 연구와 글쓰기에서 무용수와 안무가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주관적 1인칭 서술을 포함할 때,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무용에 대한 직관적이고 이론적 성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²¹⁾ 무용의 미학적 담론은 실제적 경험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수잔 랭거(Susan Langer)를 제외하고는 저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을 프래리는 인지하게 되었고, 1970년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체화된 목소리를 담은 글쓰기를 시작하였다. 프래리는 그녀의 저서 『무용과 체험된 몸(Dance and the Lived Body)』(1987)에서 여성 무용수로서 1인칭 주관적 시점에서 무용 체험의 의미를 밝히고 3인칭 관점에서 그것의 본질을 해석하는 분석적 시각으로 발전시킨다. 그녀는 또한 이후 『댄스 리서치 저널(Dance

19) M. Sheets-Johnstone(1984), *Phenomenology as a Way of Illuminating Dance, In Illuminating Dance: Philosophical Explorations*, M. Sheets-Johnstone(ed.)(Cranbury, New Jersey: Associated University Press), p.132.

20) S. Fraleigh(1987).

21) S. Fraleigh(2000), p.54.

Research Journal)』에 기고한 “영향 받기 쉬운 시선: 현상학을 통해 춤 보기(A Vulnerable Glimpse: Seeing Dance Through Phenomenology)”를 통해 무용 연구방법으로서 현상학에 대하여 구체화시켰다.²²⁾

이후 10년 뒤인, 2011년 『댄스 리서치 저널』의 무용 현상학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은 현상학적 맥락 안에서 페미니즘적 논의의 가능성²³⁾, 인간사회의 유동성(mobility)에 대한 푸코 논의의 한계점²⁴⁾, 운동 감각적 공감(kinesthetic empathy)에 대한 인지과학의 관심 급증²⁵⁾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무용학에서 현상학적 접근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널 편집자 마크 프랑코(Mark Franko)는 현상학적 기술이 비판적 무용 글쓰기를 활성화 시켰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현상학적 기술이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부정, 1인칭과 3인칭 관점의 대립, 그리고 지각, 체험에 충실한 새로운 언어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²⁶⁾

위에서 살펴보았듯, 서구에서 현상학이 1960년대 이후로 줄곧 무용학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해 왔던 반면, 국내 무용학에서의 현상학적 접근은 2000년대를 전후로 다수의 연구물이 출간된 이후로 그 논의가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의 이유를 파악하고자 다음으로는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한 국내 무용학 논문들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현상학적 접근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III. 한국 무용학에 나타난 현상학적 접근 분석

RISS에서 ‘상세검색’의 ‘전체’란 항목에서 ‘무용’, ‘춤’, ‘현상학’을 입력, 검색한 결과 국내학술지논문 26건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전체’ 항목에서의 검색 결과는 저자가 제목, 주제어, 초록, 목차에서 ‘무용’, ‘춤’, ‘현상학’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에 ‘무용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의 논문’이 검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26건을 대상으로 ‘현상학을 활용하는 방식’과 ‘논의의 주요 초점’에 근거해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은 3가지 경향이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각 항목의 제목을 명료하게 드러낸다고 판단되는 19편을 재선정하여 각 연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나머지 7편은 잡지에 실린 글이거나 재선정된 19편의 내용과 중복되고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제외시켰다.

1. 한국 무용학에 나타난 현상학적 접근 양상

가. 철학적 현상학 관점에서 ‘춤’ 또는 ‘춤 경험’ 논의

‘공연예술로서의 춤’ 또는 ‘춤 경험’에 대한 철학적 현상학 연구로는 11편의 연구가 있다. 춤은 무용수의 몸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춤’과 ‘몸’은 맥락에 따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다시 소주

22) S. Fraleigh(1991).

23) A. C. Albright(2011).

24) S. A. Ness(2011), Foucault's Turn From Phenomenology: Implications for Dance Studies, *Dance Research Journal* 43(2), pp.19-32.

25) E. C. Warburton(2011).

26) M. Franko(2011), Editor's Note: What is Dead and What is Alive in Dance Phenomenology?, *Dance Research Journal* 43(2), p.2.

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첫째, 무용예술의 ‘몸’과 ‘표현’, 그리고 메를로-퐁티와 맥신 쉬츠-존스톤의 ‘몸’, ‘존재’, ‘시공간’, ‘체험’에 대한 논의의 접합 지점을 탐색한 경우이다(김말복, 1993; 황미숙·권오륜, 2002; 배금연, 2004; 권옥희, 2004; 성재형, 2009). 김말복(1993)은 학문 분야로서의 무용학 성립에 기여한 현상학의 주요 쟁점과 가치를 강조한다. 특히 메를로-퐁티의 연구들 - 『행동의 구조』(1945), 『지각의 현상학』(1945),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1960), 『현상학과 예술』, “간접적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눈과 마음”, 그리고 이를 무용에 적용한 맥신 쉬츠의 연구들 - 『무용의 현상학』(1966), “움직임과 움직이는 물체들에 관하여: 무용에 있어서 보이는 것의 현상학”(1979), “움직임으로 생각하는 것” - 에 주목하여 논의한다. 메를로-퐁티의 ‘세계-내-존재’, ‘이미-향상-거기에’, ‘의식-신체’, ‘체험된 신체’, ‘초월성’ 개념과 쉬츠의 ‘만들어지는-형태’, ‘힘-시간-공간’, ‘역동적인 선’, ‘함(doingness)’, ‘움직이는-물체(object-in-motion)’ 개념들을 고찰한 후, 무용 현상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배금연의 연구는 황미숙·권오륜과 성재형의 연구와 달리, 움직임의 구성 요소(힘과 시공간성), 미적 측면(조형적 움직임, 역동적 움직임, 표현적 움직임), 교육적 측면에 주목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권옥희의 연구는 ‘본질 직관’과 ‘몸의 지각’에 대한 현상학적 논의를 무용교육의 미적 체험과 의미 파악으로 연결·발전시키고 있다.

둘째, 춤의 존재론적 의미를 몸에 대한 메를로 퐁티의 논의와 연결하여 탐색한 경우이다(권옥희, 2005; 배소심·최경실, 2005; 이희나, 2013; 정연수·정예수, 2014). 배소심·최경실의 연구는 제목에서 ‘춤의 존재론’을 다루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배금연(2004)의 논의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희나의 연구는 손드라 프래리의 『무용과 체험된 몸』(1987)에서 전개된 무용 현상학적 논의에 근거하면서 메를로-퐁티의 논의 한계점을 질 들뢰즈의 감각론에서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장정운(2003)은 후설의 ‘지각’ 개념과 메를로-퐁티의 ‘몸의 지향성’ 논의를 무용수와 작품에 연결시켜, ‘무대-내-존재’로서의 무용수가 자신의 몸을 인식하며 춤추는 경험을 논의한다. 장정운은 연구자이자 무용수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우리’란 단어를 사용해 자리매김 하면서 철학적 현상학 관점에서 무용수의 몸과 춤을 일반화 시킨다. 반면, 정연수·정예수(2014)는 안무자(창작자)의 몸을 “무용실”, “무대”, “일상”이란 세 종류의 공간에 존재하는 몸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반성적 견지”, “몸의 주체성과 세계에로의 지향성”, “상호작용성”으로 논의한다.

셋째, 특정 무용가의 춤과 안무에 대한 철학적 현상학 논의이다. 장정운(2005)은 ‘몸’과 ‘지각’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논의를 안무자 이사도라 던컨, 마사 그라함, 머스 커닝햄의 무용수의 몸과 춤, 안무와 연결 지어 비교 논의하고 있다. 던컨에게 있어 몸은 영혼, 정신의 표현 장소이며, 그라함과 커닝햄에게 있어 몸은 도구, 매체이면서 의미와 존재가 된다. 또한 커닝햄의 춤은 관객의 지각 위치 이동, 지각 방식의 전환과 자유를 가져다주었다고 말한다.

나. 무용학의 현상학적 연구 방향과 유효성 논의

무용연구에서 현상학적 접근이 왜 필요한가, 현상학이 무용연구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무용에서 현상학적 연구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개괄적으로 탐구한 사례로 2편의 연구가 있다. 황인주(1994)는 무용작품의 다층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례적(형식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 해석학적 접근이란 세 가지 측면에 기초한 ‘절충적 접근’ 즉, ‘해석학적 현상학 분석’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다. 반면, 김윤희(2004)는 신체 움직임 경험에 기초한 무용 및 체육 분야에서 현상학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이론적

근거 측면'과 '방법론적 근거 측면'에서 고찰한다. 주관적 체험을 강조하는 현상학은 신체 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주체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현상학의 신체 경험 기술은 질적 연구를 가능케 해 실증주의적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철학적 현상학 관점에서의 춤 경험 연구들, 무용 현상학적 연구 방향과 유효성 연구들은 서구의 대표적 현상학자와 무용 현상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거나, 또는 이를 적용한 또 다른 연구 주제 및 영역을 개척해 국내 무용 현상학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다. 질적연구방법으로서의 현상학 활용

질적연구방법으로서의 현상학을 활용해 전문무용수의 특정 춤 경험을 서술하고 그 의미를 탐색한 연구로는 6편의 연구가 있다. 이를 다시 소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첫째, 연구자가 특정 춤 전문가들을 선정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춤 경험을 서술하게 하고, 연구자가 그들의 춤 경험 서술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여 논의한 경우이다. 황인주(1999)는 즉흥춤 전문가 1인을 선정하고, 그 무용수로 하여금 자신의 즉흥춤 과정에 대한 '자기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그러한 즉흥춤을 자신이 관찰하면서 현상학적으로 기술한 것과 그 무용수의 자기보고서를 연계해 즉흥춤에 대한 본질을 밝혀내고자 한다. 황인주는 이러한 연구과정을 '해석학적 현상학'이라 말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녀의 선행 연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황인주(1994)는 무용작품의 복합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석학적 현상학'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그녀의 1999년 연구로 이어져 발전된 것이다. 또한 황인주(1999)는 IV장에서 즉흥춤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논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녀가 언급했듯이(p.284), 현상학적 기술과 자기보고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연계성을 논문의 지면상 포함시키지 않고 분석 결과만을 다루고 있기에, 그녀의 논의는 1인칭 서술이 아닌 제 3자적 접근의 글쓰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녀는 또한 즉흥춤에서 "움직임의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무용수", 무용수의 "경험을 구체화"하는 것, "자신의 개인화된 특징"이 반영되는 것 등에 주목하여 논의하고 있다(pp.289-293). 황인주의 연구는 개괄적으로 볼 때 즉흥춤의 다층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연구 성과가 있으나, 연구자의 현상학적 기술과 선정된 무용수의 자기보고서가 현상학의 근본 취지와 맥락을 어느 정도까지 실천하였는지는 독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윤희·신현군(2002)은 한국전통춤 무용수 16명에게 살풀이 춤을 추었을 때의 경험을 작성하게 한 후, 두 연구자는 그들의 춤 경험의 의미를 "독특성", "자연발생적 움직임", "자기 확신성"으로 유형화 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신체성 - 호흡의 중요성, 신체의 조화로움, 특이한 감각적 느낌, 주체적 자아로서의 신체 경험", "시간성 - 시제 구분의 모호함, 시간 개념의 상실", "공간성 - 가상적 공간 인식, 특이한 공간 체험, 주변 공간과의 일치감"이란 의미로 분류, 해석한다. 그리고 각 무용수의 진술 일부를 직접 인용으로 가져와 두 연구자의 의미 해석이 타당함을 뒷받침 하고 있다. 두 연구자는 '해석학적 현상학'이란 개념을 사용해 현상학적 기술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있음을 언급한다. 김정은·신현군(2003)은 발레무용수 30명에게 발레를 했을 때의 몸의 경험을 기술하게 한 후, 연구자는 이를 "소유로서의 신체 경험 단계", "존재로서의 신체 경험 단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발레무용수의 신체경험의 의미를 "객체로서의 신체", "훈련 대상으로서의 신체", "신체의 물리적 공간 인식", "객관적 시간 인식", "신체의 한계성", "초월적 공간 의식", "변형된 시간 인식", "몰입된 신체", "초월적 신체", "특이한 신체 느낌"으로 분류·논의한다. 김정은·신현군의 연구는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Marcel)의 신체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체육학자 세이모어 클라인만

(Seymour Kleinman, 1970)의 ‘체험적 기술과 분석’을 연구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태균·정은영(2009) 역시 클라인만(1970)의 ‘체험적 기술과 분석’을 활용해 한국 비보이 댄서 12명에게 비보이 댄스 경험을 스스로 작성하게 한 후, 연구자는 그들의 춤 경험을 “즐거움, 자유와 일탈, 만남, 열정의 황홀경, 아름다움, 자부심과 보람”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논의하고 있다. 황인주(1999), 김윤희·신현군(2002), 김정은·신현군(2003), 유태균·정은영(2009) 연구의 공통점은 연구자가 (자신의 춤 경험을 1인칭으로 현상학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제 3자들의 춤 경험을 그들 스스로 작성하게 하고 그들의 진술들을 연구자가 수집하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반복 사용된 단어와 내용을 토대로 의미를 해석해 낸다는 점이다.

둘째, 타인의 주관적 경험 서술을 연구자가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사례들과 유사하지만, 질적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한 경우이다. 주현아·여인성(2003)은 남성 무용수 7명을 대상으로 리허설에서 실제 공연에 이르기까지 춤을 추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기록하게 하고, 이러한 기록에서 도출된 “무용 시작의 의미, 무용경험의 의미, 남성무용수의 세계, 남성무용수의 미적 표현 양태”란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다. 이후, 두 연구자는 남성무용수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무용과의 만남(무용을 시작하게 된 동기, 주변의 반응), 춤추는 나(춤의 의미, 몰입 경험, 도구로서의 몸, 무대를 향한 열정, D 콩쿠르가 갖는 의미), 성(性)과 춤(남성다움, 음양과 조화)으로 재분류 한 후 이에 대한 의미를 논의하고 있다. 주현아·여인성은 이러한 과정이 “주제별 약호화 → 의미 범주화 → 의미 개념화”에 근거한 자료 분석이라고 칭하며,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집중 관찰, 삼각측정법, 연구 참여자 확인, 동료 연구자 조인 등을 수행하였다고 말한다. 한지영(2006)은 의도적 표집 방법을 통해 정재 전문무용수 6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면담과 비구조화된 면담을 약 2달 동안 2-3회 실시하였다. 면담은 대개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일관된 관찰, 삼각측정법, 심층기술, 녹음 및 현장 기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정재 무용수들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정재의 춤 경험을 “감정의 순화”, “신체적 이완”, “안정감”, “몰입”, “기의 순환”이란 소주제들로 분류하고 각각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논문 제목에서 ‘해석학적 현상학’, ‘현상학적 접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연구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질적연구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 질적연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여러 방법을 통해 검증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연구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1인칭의 현상학적 기술이 아니라, 연구자가 제 3자의 경험이나 제 3자의 경험에 대한 그 3자의 진술들을 가져와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떤 현상, 사물, 경험에 대한 선입견, 판단을 중지하고 현상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진술하는 현상학의 근본 취지와 주장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하겠다.

2. 한국 무용학에 나타난 현상학적 접근의 성과와 한계

현상학은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선입견, 판단을 배제하고 현상 그 자체에 대한 몸의 즉각적인 경험과 주제성을 중요시 하였다. 현상학은 전통 철학의 정신/몸의 이분법적 체계에서 소외된 몸에 주목하여, ‘의식-신체’가 동등한 관계에 있는 몸을 강조하였다. 현상학의 주요 쟁점들(즉 몸, 몸과 세계와의 상호연관 관계, 공간, 존재, 생경험 등)이 무용가의 몸, 춤, 공간, 리허설, 무대 공연, 예술작품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용수이자 연구자로서 자신의 현

장, 춤 경험을 학문적으로 언어화, 이론화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현상학 관련 무용 번역서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출간되는 성과들로 이어졌다.²⁷⁾

하지만 국내 무용학에 나타난 현상학적 접근은 다음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무용학에서 현상학적 접근이란 ‘철학적 현상학’과 ‘질적연구의 한 갈래로서 현상학 접근’을 의미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무용학에서의 현상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존재론적 맥락과 방법론적 맥락으로 구분해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존재론적 맥락이란 앞서 ‘3장 가. 철학적 현상학 관점에서 “춤” 또는 “춤 경험” 논의’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에서 연원되어 간과되었던 춤추는 몸의 경험과 주체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그 이론적 토대를 현상학에 두고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론적 맥락이란 ‘3장 다. 질적연구방법으로서의 현상학 활용’ 부분에서 논의되었듯이, 춤추는 몸의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기술, 분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소위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질적연구방법의 한 갈래로서 현상학적 연구를 지칭한다. 따라서 철학적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으로서 현상학은 그 사용에 있어서 구분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용학에서 질적연구방법으로서 현상학적 접근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로서 현상학적 이해를 토대로 하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정량적 분석 방법으로 파악될 수 없는 현상의 질적 측면을 다루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 방법 중 하나로서 현상학적 질적연구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남인은 현상학적 질적연구방법이 후설,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등이 주창한 현상학적 철학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명칭을 붙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²⁸⁾ 이러한 문제는 무용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 무용학에 나타난 현상학적 접근 대부분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제 3자들의 개인적 진술(1인칭 이야기)을 연구자가 수집하고, 다시 주제 별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어떤 기준에 맞춰 검증한다. 여기서 현상학의 핵심인 ‘판단 중지’, ‘선행적 현상학적 환원’이란 근본 취지와 맥락이 상실되고 있다. 연구자의 주관성이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고, 이것이 현상학적 주관성과 동일한 맥락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증주의적 양적 연구 맥락에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제 3자의 1인칭 진술을 정리, 분류, 요약, 의미 도출하는데 머무는 경향이 있다. 현상학은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에 대한 판단중지와 환원을 통해 인간 의식의 본질적 구조의 직관적 파악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실증과학과 같이 개인의 목적, 지각, 경험, 느낌, 반응, 가치, 생각 등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일반화된 진술을 도출하는 방법은 “진정한 철학적 현상학이 아니라 ‘실증적 현상학’(empirical phenomenology)”이라 보아야 한다.²⁹⁾ 따라

27) III장에서 살펴본 연구 사례들은 주로 1993년에서 2010년대 사이에 출간되고 있는데, 이는 현상학 관련 연구들이 이 시기에 번역·출간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김말복의 『무용예술론』(1987), 쉬즈-존스톤의 『무용의 현상학』(1994, 김말복 역), 장정운의 『무용하는 신체, 세계 속의 신체』(2005)는 무용인들의 현상학 연구를 활성화 시킨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철학미학 분야에서의 현상학 관련 도서 출간들은, 즉 메를로-퐁티의 『현상학과 예술』(1983, 오병남 편 역), 『의미와 무의미』(1985, 권혁면 역), 모니카 M. 랭어의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1991, 서우석·임양혁 역), James Schmidt의 『메를로-퐁티』(1993, 홍경실 역), 박이문의 『현상학과 분석철학』(1993), 최경호 역의 『신체의 현상학』(1994), Mikel Dufrenne의 『미적체험의 현상학』(1996, 김채현 역), 류의근의 『메를로-퐁티에 있어서 신체와 인간』(1996), 김경호(1999)의 『메를로-퐁티와 애매성의 철학』, 메를로-퐁티(1945)의 『지각의 현상학』(2002, 류의근 역), 이남인의 『현상학과 해석학』(2004), 조상식의 『현상학과 교육학』(2002), 조광제의 『몸의 세계, 세계의 몸』(2004)은 무용인들에게 무용수의 몸과 춤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하였다. 이는 이러한 연구들이 무용 현상학적 연구의 주요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8) 이남인(2014), 현상학과 질적연구: 철학과 인접학문의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철학과 현실』 64, p.172.

서, 진정한 의미의 현상학적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험과 즉각적 진술이 인간의 보편성과 연결될 수 있는 판단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이 행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 의식의 본질적 구조를 강조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무용학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제 3자의 1인칭 진술을 토대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지만,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 1인칭 경험 서술과 의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서 프래리는 무용 경험에 대해서 객관적 3인칭 서술이 그동안 일반화되어 있어 무용수의 직관적 경험에 대한 서술이 부재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³⁰⁾ 그녀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서 무용수와 안무가의 경험을 주관적 1인칭 시점에서 서술함으로써 춤추는 경험의 본질적 구조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의 현상학적 무용연구에서 무용수 또는 안무가 자신의 1인칭 서술은 여전히 부재하며 이것은 한국 무용학계는 실증주의적 글쓰기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김수인의 연구(2014)에 따르면, 한국 무용학의 질적인 학문적 글쓰기에서 연구자 자신을 1인칭으로 지칭하거나 연구자의 주관적 성찰이 드러나는 경우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³¹⁾ 한국 무용학계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성을 강조하는 실증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현상학적 접근에 있어서도 그러한 태도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나가는 말

현상학은 정신/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사고 체계에서 소외된 무용예술이 학문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였다. 애매모호의 철학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현상학은 어떤 면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얼핏 보면 주관적인 서술, 논의처럼 보이는 한계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상학의 주요 쟁점들은 몸 중심의 무용(학)에 이론적 개념과 틀을 제공하면서 이후 무용 현상학적 연구들로 발전, 확산되었고, 더 나아가 미셸 푸코로 하여금 현상학 자체에 비판을 가하고 시선과 고고학, 계보학을 발전시켜 이후 문화사의 핵심 요소로서의 몸을 재인식 하도록 이끌었다.³²⁾

국내 무용학에서의 현상학적 연구들 대다수는 서양에서 시작하고 발전된 ‘현상학’의 특성과 이론을 부분적으로 이해,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상학’이란 학문을 둘러싼 전체 맥락과 주요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주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홍식(2016)이 언급했듯이 현상학의 ‘판단 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을 충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³³⁾ III장의 사례들은 타인의 1인칭 경험 서술들을 연구자가 가져와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주제별로 분류,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 1인칭 경험 서술과 의미 논의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무용수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1인칭 경험을 서술하는 연구가 많이 나와야 한다. 무용의 본질에 다가서고자 하는 연구가 나와야 한다. 연구자 자신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한 것이 매우 드물었는데,

29) 김홍식(2016), p.181.

30) S. Fraleigh(2000), p.54.

31) 김수인(2014), 한국과 미국 무용학회의 질적 연구와 학문적 글쓰기 동향: 나와 본 연구자 사이, 『무용예술학연구』 49, p.38

32) 최정운(1996), 푸코의 눈: 현상학 비판과 고고학의 출발, 『한국정치학회보』 29(4), pp.181-214.

33) 김홍식(2016), pp.199-200.

이것이 국내 무용 현상학적 연구의 한계점이라 생각한다. 현상학적 접근이 무용학에 유용한 이유는 무용수의 경험이 주관적이어서 연구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지만, 무용수의 경험이 좋은 하나의 연구 대상, 영역이 될 수 있고, 학문적 연구 대상과 영역으로 무용수의 경험이 자리매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무용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무용수로서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이론화, 맥락화 하는 연구가 매우 드문 현실이다. 질적 연구보다는 과학적, 객관적, 실증주의적 연구가 더 장려되는 경향이 있다.³⁴⁾

본 연구는 국내 무용학에 나타난 현상학 수용 양상과 성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현상학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여전히 현상학 연구가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메타연구로써 기존 연구가 갖고 있는 특성, 한계점,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원인과 앞으로의 과제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010년대 이후 체화된 연구(embodied research), 연구로서의 실천(Practice as Research, PaR)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³⁵⁾,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무용학에서의 현상학적 연구의 위치 및 의의를 재고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체화된 연구가 국내 무용계에 여전히 낯설지만 중요한 연구 방법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다룬 무용 현상학적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34) 김수인(2014), p.23.

35) S. I. Kim(2015), A Study Concerning Commensurability of Language for Academic Communication in Dance Studies, 『무용예술학연구』 53, pp.7-8; 김수인(2016), 학문분과로서 무용의 다면성에 대한 고찰, 『무용예술학연구』 60, p.31.

- 메를로-퐁티, 모리스(1945).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 메를로-퐁티, 모리스(1964).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남인수(역). 서울: 동문선. 2004.
- 박이문(2010). 『존재와 표현: 메를로-퐁티의 애매성 철학에 대한 비판적 해석』. 서울: 생각의 나무.
- 양해림(2000). 『몸의 현상학: 메를로-퐁티의 몸의 문화 현상학』. 한국현상학회(편). 서울: 철학과 현실사.
- 하이데거, 마르틴(1927). 『존재와 시간』. 이기상(역). 서울: 까치, 1998.
- Fraleigh, S.(1987). *Dance and the Lived Body: A Descriptive Aesthetic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 Husserl, E.(1907). *The Idea of Phenomenology*. L. Hardy (trans.). Dordrecht: Kluwer. 1990.
- _____ (1913). *Ideas Pertaining to a Pure Phenomenology and to a Phenomenological Philosophy*. F. Kersten (trans.).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83.
- Kozel, S.(2007). *Closer: Performance, Technologies, Phenomenology*. MA: MIT Press.
- Parviainen, J.(1998). *Bodies Moving and Move: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Dancing Subject and the Cognitive and Ethical Values of Dance Art*. Tampere: Tampere University Press.
- Sheets-Johnstone, M.(1966). *The Phenomenology of Dan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_____ (1984). *Phenomenology as a Way of Illuminating Dance*. In *Illuminating Dance: Philosophical Explorations*, M. Sheets-Johnstone(ed.). Cranbury, New Jersey: Associated University Press.
- 권옥희(2004). 메를로-퐁티의 신체론으로 본 무용교육의 현상학.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5(2): 147-165.
- _____ (2005). 존재론적 시각에서 본 춤과 몸의 관계성 연구 - 거울 이미지를 통한 -.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6(1): 181-198.
- 김말복(1993). 현상학적 무용해석의 과제. 『한국문화연구원논집』, 62(1): 163-188.
- 김수인(2014). 한국과 미국 무용학회지의 질적 연구와 학문적 글쓰기 동향: 나와 본 연구자 사이. 『무용예술학연구』, 49: 21-45.
- _____ (2016). 학문분과로서 무용의 다면성에 대한 고찰. 『무용예술학연구』, 60: 17-36.
- 김윤희(2004). 신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근거.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2(2): 251-266.
- 김윤희, 신현군(2002). 살풀이 춤 체험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0(1): 79-114.
- 김정은, 신현군(2003). 발레 무용수의 신체현상학: Gabriel Marcel의 실존-현상학적 신체관을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1(1): 317-350.
- 김홍식(2016). 한국 체육학에서의 현상학적 연구와 방법적 적합성.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4(4): 173-202.

- 나장합(2008). 질적 메타분석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과정연구』, 26(4): 229-252.
- 배금연(2004). 현상학적 접근에서 본 무용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39: 91-111.
- 배소심, 최경실(2005). 몸의 현상학을 통한 춤예술의 존재론적 본성. 『한국체육학회지』, 44(6): 1059-1069.
- 성재형(2009). 메를로 폰티의 몸의 현상학에 대한 무용의 신체관 연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7(3): 163-179.
- 유태균, 정은영(2009). 비보이 댄스 체험의 현상학적 접근.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7(3): 261-278.
- 이남인(1996). 하이데거의 후설 비판과 해석학적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8: 199-242.
- _____ (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91-122.
- _____ (2014). 현상학과 질적연구: 철학과 인접학문의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철학과 현실』, 64: 165-180.
- 이희나(2013). 춤의 감각적 소통과 존재 의미 연구: 메를로-폰티의 현상학 및 존재론을 바탕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지』, 30:183-199.
- 장정운(2003). 현대무용의 발전에 나타난 철학사상(2): 현상학을 중심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4(1): 95-113.
- _____ (2005). 현대무용의 신체 활용과 현상학적 의의. 『대한무용학회논문집』, 42: 135-153.
- 전예완(2011). 춤추는 몸: 실존의 미적 정당화-니체 사상에서 “춤”의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66: 67-96.
- 정연수, 정예수(2014). 안무가의 몸에 관한 현상학적 소묘.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2(2): 237-248.
- 주현아, 여인성(2003). 남성 직업무용수의 무용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6): 117-128.
- 최정운(1996). 푸코의 눈: 현상학 비판과 고고학의 출발. 『한국정치학회보』, 29(4): 181-214.
- 한지영(2006). 무용수의 정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대한무용학회논문집』, 49: 283-300.
- 황미숙, 권오륜(2002). 현상학을 통한 무용예술에서의 신체관.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0(2): 419-435.
- 황인주(1994). 무용의 이해를 위한 방법론적 연구: 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16: 247-259.
- _____ (1999). 해석학적 현상학을 이용한 즉흥무용 작품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25: 281-297.
- Albright, A. C.(2011). Situated Dancing: Notes from Three Decades in Contact with Phenomenology. *Dance Research Journal*, 43(2): 7-18.
- Fraleigh, S.(1991). A Vulnerable Glance: Seeing Dance Through Phenomenology. *Dance Research*

Journal, 23(1): 11-16.

_____ (2000). Consciousness Matters. *Dance Research Journal*, 32(1): 54-62.

Franko, M.(2011). Editor's Note: What is Dead and What is Alive in Dance Phenomenology?. *Dance Research Journal*, 43(2): 1-4.

Glass, G. V.(1976). Integrating Findings: The Meta-Analysis of Research.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5: 351-379.

Kim, S. I.(2015). A Study Concerning Commensurability of Language for Academic Communication in Dance Studies. 『무용예술학연구』, 53: 1-18.

Ness, S. A.(2011). Foucault's Turn From Phenomenology: Implications for Dance Studies. *Dance Research Journal*, 43(2): 19-32.

Sandelowski, M., S. Docherty, and C. Emden(1997). Qualitative Meta-synthesis: Issues and Techniqu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0: 365-371.

Warburton, E. C.(2011). Of Meanings and Movements: Re-Languaging Embodiment in Dance Phenomenology and Cognition. *Dance Research Journal*, 43(2): 65-83.

Zimmer, L.(2006). Qualitative Meta-Synthesis: A Question of Dialoguing with Tex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3): 311-318.

논문투고일	2017.	2.	15.
심사일	2017.	2.	27.
심사완료일	2017.	3.	7.

Critical Remarks on Phenomenological Approaches to Dance in South Korea

Kim, Hyunjung* · Han, Seok Jin**

Assistant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 Research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This paper aimed to critically investigate phenomenological researches on dance in South Korea in order to clarify what 'a phenomenological approach' means in dance writing. To do that, it undertook literature reviews of key concepts of phenomenology as well as of pioneering academic works in dance phenomenology. Then, this paper conducted a meta-analysis of previous phenomenological studies on dance in South Korea, which helped to identify obscure and unclear understandings of phenomenological approaches in dance research. As a result, we discovered that the term 'a phenomenological approach' was confusedly used as either the application of phenomenology theories to dance experience or a phenomenological description of it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general. Also, in terms of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dance researchers tended to categorize others' first-person accounts of their dance experience and explore their meanings, which conflicted with phenomenological notions of Epoché and Phenomenological Reduction.

Keywords: Dance(무용), Phenomenology(현상학), Meta-analysis(메타분석), Philosophy(철학),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질적연구방법)